

서부권

“신장 투석해야 하는데 외딴섬 근무라니...”

신안군수 ‘보복성’ 인사 물의

업무능력·연공서열 무시... 측근 주요보직 배치

공무원 노조 “감정에 의한 불이익 인사 부당”

박우량 신안군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단행한 대규모 인사가 물의를 빚고 있다.

군 조직개편과 순환보직을 위해 단행한 대규모 인사가 전문직을 비롯 업무능력과 연공서열 등을 전혀 무시한 채 측근들만 주요보직에 배치하는 등 철저한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경화 말기환자인 직원은 물론 신장투석을 주당 3회 이상하는 직원, 노모를 부양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부 공무원들 까지도 한꺼번에 국도 회서남단 가거도(소흑산도) 등 오지 섬으로 발령을 내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5급 승진 3명과 5급 이상 28명 전보를 비롯해 6급 112명, 6급 이하 222명 등 총 365명에 대해 승진 및 순환보직 전보를 단행했다.

그러나 간경화 말기환자로 수년 전부터 치료를 받으며 신안군 압해도

서관에서 근무하는 김모(행정 7급)씨를 섬지역 팔금면으로 전보하는가 하면 신장투석을 1주일에 3회 이상하는 행정직원과 전보(행정 7급)씨를 입자 대관관리사업소에 전보하는 바람에 이들 중병환자 직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부부 공무원인 건설재난관리과 최모(시설 6급)씨와 군 보건소 정모(보건 7급)씨의 경우 하의면과 임자면 보건지소에 각각 전보 발령을 냈다.

신안군보건소 서모 소장(보건 5급)과 군청 녹색성장지원단 가후담담 박모(행정 6급) 부부공무원 역시 흑산면 홍도출장소장과 흑산면 가거도출장소장으로 전보 발령을 하는 바람에 부양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됐다.

특히 군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흑산면 홍도출장소장으로 전보 발령된 서모씨의 경우 위암 3기로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79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가운데 자44명 중 3명이 목

포에 소재한 대학교, 고등, 초등학교를 다니는가 하면 5살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도 남편까지 교육과 병행으로 불편한 노모를 모시는데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신안군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박우량군수는 그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해 징계유보 후 부당승진 시키고 승진임용에 대해 부당지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최초 기관장 경고를 받는 등 개인적 감정과 불법적인 인사관행을 꾸준히 자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윤관수 신안군 노조지부장은 “박군수는 이번 인사에서도 군수측근이 아니라는 이유와 군수의 무언의 요구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공서열 및 근무능력을 무시한 채 전보나 승진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지난 6·2 지방선거때 뜬구름 잡는 자와 노조에 탈퇴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보복성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부당한 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과 순환 근무원칙에 따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서열과 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원기자 wncho@



“해남 친환경 물김 납시오”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항에서 어민들이 갯 채취한 물김 위판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해남산 물김은 60kg에 8만원을 웃도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upark@

서해남부 해수면 높이 기준점 17곳 유실

해양조사원 조사 완료...8점 신규 매설

서해안의 항만개발 및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해수면 높이 기준점 조사가 완료됐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지역인 서해 남부의 해수면 높이 기준점 조사완료에 따라 해수면 변화 및 지각변동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서해 남부 해수면의 높이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서해 남부에 매설된 ‘기본수준점’ 가운데 삼호도, 허사도 등 17점이 해안공사 등으로 유실 및 폐기된 것으로 확인돼 8점을 추가로 신규 매설했다. ‘기본 수준점’은 지역별

로 단위 조석관측을 시행 후 점표를 매설하고 그 높이를 결정해 고시한 국가해양 수직기준점이다.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신안, 진도, 해남 등 36개 지역 총 113점의 ‘기본수준점’을 설치·관리하고, 이 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레벨 및 위성측위기(GPS)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기준점의 정확한 높이와 위치, 지반침하 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완료에 따라 항만설계시 필요한 높이 기준뿐 아니라 서해안 지방자치현상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진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개소

진도에 최신 선별시설과 포장시설을 갖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문을 열었다.

진도군은 지난 23일 군내면 신동리에서 김영록 국회의원과 이동진 진도군수, 전남도 관계자, 지역 농업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진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5여억원이 투입된 서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부지 7485㎡에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양파 선별기, 차량 개근대 등을 갖췄다. 공동 선별을 통해 진도군에서 생산된 청정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진 산지유통 영농조합법인 김옥현 대표는 “항후 대형 유통업체와의 납품, 대만·일본 등 수출 확대, GAP 인증 등을 통해 진도 농산물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upark@

완도는 드라마 촬영중

KBS ‘근초고왕’... ‘해신’ 이후 각광

완도가 해상왕 장보고 대사를 다룬 ‘해신’ 이후 역사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KBS-1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이 지난 14일부터 청해포구 일원에서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 신지 명사십리와 소재포 청해포구 촬영장, 완도항 일원을 대상으로 주인공인 감우서, 김지수를 비롯해 정웅인, 안재모 등 대다수의 배우와 스태프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 전투 장면과 왕고 타이틀 2~3차례 촬영을 했다.

완도군 촬영이 본격화 되고 있는 13회 분부터 해상 전투장면과 백제 12대 어라하로 주인공에게 된 부여군이 흑강공과 거래를 통해 부여구(후일 근초고왕)의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여구를 요사로 추방, 암살 음모



가 그려질 예정이다. 앞으로 완도지역 촬영은 부여구의 망명생활 근거지인 청하원을 소재로 청해포구 촬영장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은 소설가 이문열의 ‘대륙의 한’을 각색해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룬 13대 근초고왕의 파란 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달 6일부터 방송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진도, 고려 삼별초 흔 기린다

郡, 10억 들여 용장리에 항몽 충혼탑

진도군에 고려 삼별초 항몽(抗蒙) 충혼탑이 세워졌다.

26일 진도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을 들여 삼별초군의 흔이 살아있는 군내면 용장리 용장산성 왕궁지 입구에 고려항몽 충혼탑을 세우고 29일 제막식을 갖는다.

충혼탑은 높이 9.8m·길이 20.5m·너비 7.3m 크기이다.

군은 제막식과 함께 역사소설가 구종서씨를 진도명예 군민 및 역사문화대사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할 예정이다. 군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몽골군에 대항했던 고려 삼별초군의 자주 국방정신을 기리고

대몽항쟁 시 전사한 삼별초 군인, 민초들의 흔을 달래고 이를 후대에 길이 기념하고자 조형물을 건립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충혼탑 건립을 시작으로 삼별초 호국 유적지 본격적으로 정비해 진도를 삼별초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에는 ▲삼별초군의 기지이며 왕이 머물렀던 용장산성 ▲전왕 온의 묘 ▲삼별초 궁녀들터 ▲배추손장군 사당 ▲남도석성 ▲김통정 장군이 제주도로 피난을 위해 출발했던 급급진성 등 수많은 삼별초의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upark@

목포대, 무안 사회복지관에 ‘사랑의 김치’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 교직원 자원봉사단(단장 이근우 사무국장)은 지난 22일 교내 학생생활관 식당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갖고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목포대 자원봉사단은 절임배추

240포기와 양념 200kg을 구입해 직접 김치를 담가 60박스(10kg)에 나눠 포장했다. 이번 행사 재원은 고석규 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등 전 교직원들이 참여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점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만원...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건물: 65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호남랜드공인중개사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 3층, 연면적598, 81(181평) 매매가7억5천...

믿음 공인중개사
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50평 134평 100평 (다량보유)

화정동 대주피오레
66형 미입주 물건 다량보유
전세대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중앙공원 4개월 경관 및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공원 산책로...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